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7월 16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독일 뉘르부르크링 택시 프로그램에 'GV60 마그마' 투입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 트랙으로 꼽히는 독일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 서킷에서 운영 중인 '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Genesis Track Taxi Nordschleife, 이하 제네시스 트랙 택시)' 프로그램에 브랜드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새롭게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트랙 택시 프로그램은 전문 인스트럭터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객이 직접 동승해, 레이싱 주행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4 년 6 월 출범 이후 두 대의 G70 차량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2 년간 3,000 여 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차량들은 같은 기간 뉘르부르크링을 약 1,300 바퀴 돌며 27,081.6km 의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했으며, 180 세트 이상의 타이어가 소모됐다.

제네시스는 여기에 GV60 마그마를 새롭게 투입해 고객들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성능 방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선보인 첫 럭셔리 고성능 모델로 부스트 모드 기준 합산 최고 출력 650 마력과 최대 토크 790Nm 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능을 갖췄다. 이번 제네시스 트랙 택시에 추가되는 GV60 마그마에는 미쉐린의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Pilot Sport S 5 가 장착됐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뉘르부르크링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PRESS RELEASE

트랙 위에서 GV60 마그마의 뛰어난 주행 성능을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다.

GV60 마그마 차량 투입과 함께 기존 G70 를 포함한 트랙 택시 운영 차량에는 새로운 외장 디자인이 적용됐다. 제네시스 공식 모터스포츠 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의 '르망 24 시' 리버리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디자인은 전면부의 밝은 주황색이 후면부로 갈수록 짙은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컬러를 통해 차량의 역동적인 속도감과 에너지를 표현했으며, 차량 루프에는 한글로 '마그마' 레터링을 적용해 한국적 정서를 담은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다.

제네시스 트랙 택시는 1 대당 최대 3 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좁은 도로폭과 73 개의 코너, 최대 300m 의 고저차를 갖춘 총 20km 길이의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코스를 약 8~10 분 동안 질주하며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현지에서 누구나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노르트슐라이페 트랙 오픈 기간 중 운영되며, 신규 투입된 GV60 마그마 트랙 택시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끝]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